

issue comment

Analyst 박형우 hyungwou@skc.co.kr / 02-3773-9035

SK증권 리서치센터

summary

- LG전자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
- 가전 실적 선방과 전장부문 자회사의 흑자 확대 영향
- PBR 저평가인 현 주가 : 트레일링 1.0배 / 23F 0.9배

LG 전자 - 3Q23 잠정실적 리뷰 코멘트

▶ 3Q23 영업이익, 컨센서스 상회

- 영업이익 9,967 억원 기록 (컨센서스 8,084억원)
- 매출액은 컨센서스 수준
- 우려를 상회하는 실적 배경: ① 가전 실적 선방, ② 전장부문 자회사 흑자 확대

▶ 부문별 실적 추정 및 주요 사항

- 지난 분기와는 달리 인력 관련 비용 발생하지 않았고, 대규모 충당금 설정도 없었음

<부문별 영업이익>

- 가전 : 5,257억 (7.0%, 이하 OPM) / 수요 우려 대비 견조한 실적
- TV : 1,273억 (3.5%)
- 전장부품 : 1,367억 (5.5%) / 분기 최대 영업이익 기록
- B2B : -136억원 (-1.0%)

<부문별 매출>

- 가전 매출은 우려와 달리 역성장 없었음. 다만 전장부품은 전분기 대비 7% 감소

▶ 애널리스트 의견

- 전장 부문 내 JV인 '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'의 손익 개선 추이 주목
(순손익 : 1Q22 -260억, 4Q22 -61억, 2Q23 -33억원, 3Q23 흑자전환 추정)
- 주요 IT 세트와 전장부품의 단기적 수요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. 그러나,
- LG전자 주가의 핵심은 실적트렌드(상고하저), 중장기 전장모멘텀, 현재 주가와 밸류에이션 레벨이라 판단
- PBR은 전년말(트레일링) 기준 1.0배 / 23F(포워드) 기준 0.9배.

과거 10년의 PBR 밸류에이션 추이 (0.8~1.2배) 고려 시 저평가 국면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(관리자는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
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투자판단 3 단계(6개월기준) 15%이상 -> 매수 / -15%~15% -> 중립 / -15%미만 -> 매도